

◆며느리권씨 일전 4

고려말 권신 염제신의 부인

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夫人 권씨(복야공파 14세 世, 권한공의 딸)

진한국대부인이란 고려조 외명부 최고의 직책이며 조선조 정경부인(정승 부인)급이다. 다음 내용을 보자면 권씨부인은 당시 왕족을 제외하고 최고의 '금수저' 입을 알 수 있다. 아버지 권한공(權漢功, 1265-1349, 13세, 복야공파, 85살)은 도첨의정승(都僉議政丞, 현 국무총리), 예천부원군(왕족을 제외한 최고의 예우)이고, 할아버지 권핵(權頤, 1241-1315, 75살)은 첨의평리(僉議評理, 차관급),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장관급)이다.

어머니는 삼한국대부인 평강 채씨(三韓國大夫夫人康蔡氏)로 채모(蔡謨 1227-1302), 첨의시 랑진찬성사(僉議侍郎贊成事, 종리실장 장관급)의 딸이다.

외할머니는 군기감(軍器監, 국방부 차관보급, 75살) 권제(權濟)의 딸 영가군대부인(永嘉君大夫夫人, 1244-1333, 95살)이다.

그녀의 형제들도 화려하지만 그중 동생 권중달(權仲達)의 사위가 목은 이색이고, 권한공의 손자이자 이색(李穡, 1320-1396, 성균관대사성)의 처남인 권계용(權季容)은 예천군(醴泉君), 전법판서(법무부 국장급)이다. 진한국대부인 권씨는 권계용의 고모가 되고 또 그 동생 권중화(權仲和, 1322-1403)는 태종조의 영의정(총리)을 지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염제신(廉悌臣, 1304-1302)은 공민왕이 그려준 그의 초상이 보물107호로 지정되어 있고 관직은 문하시중(門下侍中, 국무총리)이며 묘비명에 고려국총성수의동덕논도보리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곡성부원군(高麗國忠誠守義同德論道補理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城府院君)이니 최고의 것은 다 불여져 있다. 시호는 충경공(忠敬公), 호는 매현(梅軒)으로 윤봉길 의사와 같다. 그녀의 세 아들 염국보, 염흥방, 염정수는 모두 대단하기 그지없는 관록의 인물들이다.

염국보(廉國寶, ?-1388)는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문교부장관 이상급),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를 거쳐 지공거(知貢舉)가 된 대학자이다. 추종보절공신(推忠保節功臣), 삼중대광(三重大匡) 서성군(瑞城君)에 봉해진 인물이다.

염흥방(廉興邦, ?-1388)은 밀직부사, 밀직제학(대통령비서실장) 도병마사(계엄사령부)이며 서성군(瑞城君)에 봉해진 인물이다.

염정수(廉廷秀, ?-1388)는 동지밀직(同知密直), 대제학(大提學, 문교부장관 이상급)을 지냈다.

신비(慎妃)는 딸인데 제31대 공민왕(恭愍王, 1330-1374, 재위: 1351-1374)의 왕비이니 왕의 장모인 것이다. 신비는 공민왕의 변태적인 요구에 끝까지 반항하고 공민왕 피살 뒤에 스님이 된다. 즉 바깥 사돈이 고려 제27대 충숙왕(忠肅王, 1294-1339, 재위: 1313-1330, 1332-1339)이고 안사돈이 공원왕후(恭元王后, 1293-1380)이라는 것이다.

사위는 밀직부사(密直副使) 흥정(洪徵, ?-1388), 진현관제학(進賢館提學)과 임현(任獻, ?-1388), 밀직사상호군(密直使上護軍) 정회계(鄭熙계, ?-1396)가 있다.

권씨 부인이 날지 않은 자식으로 염혜주(廉惠珠), 염광원(廉廣元)이 있고 사위로는 삼사우윤(三司右尹) 이송(李棟), 중랑장(中郎將) 흥문필(洪文弼)이 있다. 여기서 세 아들과 정회계를 제외한 사위 두 명의 사망연이 1388년이다. 즉 이들은 모두 사형 당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우왕(禦王)이 염씨들의 전횡을 미워하여 최영(崔螢)에게 명하니 이성계(李成桂)가 집행했다는 것이다. 사위 정회계는 조선 개국공신이다.



남편 염제
신이 부인 사
별 후에 쓴 애
도시가 있으
니 그녀가 생
전에 혼한 꽃
은 안보았다
는 것은 다행
이다. 이처럼
화려한 가문

도 일시에 그
명(命)을 다

하는 것이니 무섬마을의 김나수의 부인 닭실의 권
씨 부인 스토리의 주인공과 비하여 얼마나 행복했
을지 그리고 높이 평가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인
간의 가치는 그 지위와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왕사여연(往事如煙, 지난 것은 모두 한줄기
연기같은 부질없는 것)이라니 우리는 이를 잘 인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염제신의 스토리와
염씨 문종이 주장하는 염씨 멸족의 내용(戊辰慘禍)
을 음미해보자.

염제신 연보

1304년(충렬왕 30) 10월 : 도첨의증찬을 지낸 종
정공 승의의 손자이며, 아버지 염세종과 어머니 가
순택주 조씨의 2남, 아명은 불노(佛奴), 자는 개수
(凱淑)으로 뒤에 이름을 제신으로 고쳤다.

1309년(충선왕 1) : 11월 28일 6세 때 아버지 대호

군 염세종 사망

1309년(충선왕 1) : 원나라로 건너가 고모부 말길
공(末吉公, 중서평장사) 집에서 10여 년간 생활하며
수학함

1324년(충숙왕 11) : 21세 때 원의 태정황제를 모
시는 금중의 숙위에 임명됨

1326년(충숙왕 13) : 23세 때 어머니를 봉양하려
고려로 귀국하려 원나라 황제에게 청하자 들어줌.
급자원래를 하사받고 금강산을 돌아본 뒤 귀국

1329년(충숙왕 16) : 귀국 후 원나라로 다시 들어
가 상의사를 제수받음

1333년(충숙왕 복 1) : 원순제(元順帝)에게 귀국
을 청하자 정동성당중(征東省郎中)에 임명된 뒤 현
직으로 귀국, 충숙왕(忠肅王)의 신임 얻음

1340년(충혜왕 복 1) : 충혜왕이 죽자 다시 원나라
로 되돌아갔고, 봉헌대부 이정사승에 제수됨

1343년(충혜왕 복 4) : 원나라의 자덕대부로 승진,
절강성 봉명사, 중정원 회계감사, 장작원사를 지님

1343년(충혜왕 복 4) : 고려로 영구 귀국

1346년(충목왕 2) : 광정대부 삼사우사 겸 상호군

1347년(충목왕 3) : 수성의대공신호를 받고 중대
광이 됨

1347년(충목왕 3) : 도첨의평리, 12월에 찬성사에
제수

1340년(충목왕 4) : 판도서사에 승진되고 원에 다
녀옴

1349년(충정왕 1) : 다시 중대광도첨의찬성사 판
도가 됨

1350년(충정왕 2) : 원나라에 파견되는 성절사로
대도에 감

1351년(충정왕 3) : 귀국

1353년(공민왕 2) : 조일신의 사감(私感)으로 등
용되지 못함. 공민왕(1351-74)의 즉위로 찬성사(2
품)에 복직

1354년(공민왕 3) : 단성수의동덕보리공신벽상
삼한중대광도첨의좌정승판군부사상호군 영경령
전사제수, 우정승판전리 영효사관사 곡성백에 봉해
짐. 원나라에서 남정군을 요청하여 구원군 지휘관
으로 참전, 그간의 고려 관료로서는 프랑크제국(독
일) 사신을 최초로 접촉함

1355년(공민왕 4) : 장남 염국보 과거시험에 급제

1356년(공민왕 5) : 공민왕의 개혁정책으로 친원
파 처단, 원의 공격 대비 서북면 도원수가 되고, 곧
개부의동삼사상주국 수문하시중 상장군 판병부사
영경령전사를 제수받음

1357년(공민왕 6) : 차남 염흥방 과거시험에 장원
급제

1357년(공민왕 6) : 판리부사 영효사관사로 승진

1361년(공민왕 10) : 흥건적 침입으로 어가호종하
여 수행, 그러나 모친을 피란시키지 못해서 탄핵을
받고 파직

1362년(공민왕 11) : 복직, 다시 벽상삼한삼중대
광곡성부자되

1363년(공민왕 12) : 시중에 기용되었으나, 공의
모친 상으로 사직

1364년(공민왕 13) : 1월 영도첩의사사가 되고, 9
월에 서북면 도통사가 됨

1369년(공민왕 18) : 66세 때 서북도통사에 보국
이 더해졌고, 공민왕이 친필 염제신상을 하사, 그 후
삼중대광에 특진, 곡성백에 봉함

1371년(공민왕 20) : 63세 때 3남 염정수 과거 급
제, 세 아들의 급제로 부인 권씨가 진한국대부인에
봉해짐. 딸이 공민왕의 부인 신비로 책봉됨

1374년(공민왕 23) : 광주에 유배되었으나 곧 풀
려남. 영문하사 영서연사 제수 문하시중(국무총리)
중임

1375년(우왕 1) : 충성수의동덕논도보리공신, 영
삼사사가 되고 나머지도 전의 직책으로 복직

1376년(우왕 2) : 원나라에서 자덕대부 장작원사
벼슬을 내림

1377년(우왕 3) : 도총도감을 설치하고 5부의 병
마를 훈련

1379년(우왕 5) : 76세 때 판문하사, 부원군으로
다섯 임금을 섬긴 원로가 됨

1380년(우왕 6) : 영삼사사가 되고 곡성부원군에
봉해짐

1382년(우왕 8) : 3월 18일 사망, 향년 79세, 시호는
충경공(忠敬公)으로 내려짐

1304년(우왕 10) : 신도비가 세워짐, 쳐조카 목은
이색이 왕명을 받고 신도비문을 찬함

저서 <매현선생일고(梅軒先生逸稿)>

부인 권씨 사별 후 지은 시

冒雨城東行 / 비를 무릅쓰고 도성 동쪽으로 가서

送殯有餘悲 / 영구를 전송하니 아직도 남은 비애

坐轎自沙地 / 하얀 모래밭 위에 앉지 깔고 앉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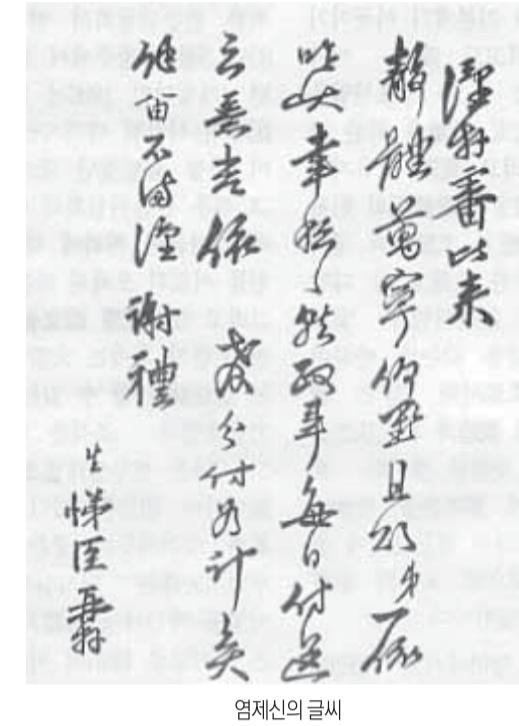
掛巾青松枝 / 푸른 솔 가지에 두건 벗어 걸었소

對食不能飽 / 밥상을 마주해도 배부를 수가 없고

有酒吾復辭 / 술이 있어도 나는 애도 사양했다오

含杯見白骨 / 백골을 보고 술잔을 입에 대었다는

古人如可追 / 옛사람을 어떻게 따를 수 있으리오
入城已晚矣 / 도성에 들어오니 벌써 해가 뉘엿뉘엿
側榆聊題詩 / 슬픔 속에 애오라지 시 한 수 짓노마라



염제신의 글씨



매현당

들이 하는 짓을 분하게 여겨, 마음과 힘을 합하여 우

왕을 인도해서 이들을 제거하였다. 임견미 등이 참
형을 당하매 이성계를 수문하시중(부총리급)으로
삼았다." 무진참화(戊辰慘禍)로 희생된 다섯 가문이
있다. 문하시중 최영(72살)은 그의 집에서 우왕(25
살)에게 염흥방을 중상모략하여 처형하도록 논
하고 윤허를 받아냈다. 조반은 같은 일당인 최영의

명령으로 1388년 1월 12일에 염흥방, 임견미, 양복
해, 이성립, 도길부와 함께 참수형을 한 것이 '무진
참화'의 발단이었다. 염흥방 가문의 희생자는 염흥
방 본인, 동생 염정수, 형 염국보, 매제 흥진, 지밀직
치중, 매제 안조동, 염흥방의 사위 윤전, 최지 등이
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난 염흥방에 대해 공양왕이
즉위하자 공민왕 때의 일을 무죄로 신원되었다. 이
는 최영과 이성계가 사전개혁 명목하에 한동안 막
강한 권한을 누렸던 임견미와 염흥방 등을 제거하
고 재산을 몰수하여 사람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인심을 얻으려 희책했던 문하시중 최영의 모함과
신진세력인 이성계의 계략이 그 원인이었다. 그 후
요동정벌에 대한 이성계의 4불가론을 우왕과 최영
이 무시하고서 요동 정벌을 독촉하자 이성계는 좌
군도통사 조민수와의 논 후 개경을 향해 회군을 단
행했다.

파주 염문(廉門)을 1388년 1월에 멸족시킨 최영
역시 불과 11개월 후인 1388년 12월에 그가 출세시
킨 이성계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역사는 수레
바퀴처럼 한 때의 적이 동지가 되고, 또한 동지가 적
이 되기도 하다 보다.

이성계에 의한 조선왕조 개국은 무진참화(1388
년)를 치른 지 불과 4년 만의 일이었다. 한편 여러 가
문들을 몰락시킨 무진참화에 대해서 고려의 조정은
물론 백성들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

무진참화 464년 후인 1052년(철종 3년) 선비들의
의견으로 염국보, 염흥방, 염정수 세 분을 나주 금강
서원(羅州錦江書院), 보성 양산서원(寶城梁山書院)

권오철 기자



당신은 노인입니다, 어르신입니다.

늙으면서 노인 되지 말고, 어르신이 되어야.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노인은 몸과 마음이 세월가면서 자연히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자신을 가꾸고 젊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